

월요광장

부정의 욕망은 악마를 부른다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세界的 문호 괴테가 쓴 고전 '파우스트'는 끝없는 욕망과 탐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최고의 지식과 명예,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삶 등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노년의 학자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행복은커녕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진다. 애당초 불가능한 것,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것, 즉 젊음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린 파우스트는 어떻게든 자신의 젊음을 되찾으려 한다. 이때 파우스트의 심정을 알기라도 하듯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젊음을 되돌려 주겠다고 유혹한다.

파우스트 앞에 악마는 어떻게 해서든 맞춰 나타나겠지? 악마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망과 악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파우스트의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 없다면 악마는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욕망이 없는 곳

에는 악마도 없다. 파우스트의 욕망이 악마를 부른 것이다. 악마는 병든 욕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욕망이 커질수록 악마의 유혹도 강해진다. 욕망 덩어리로 변한 파우스트는 악마가 내미는 계약서에 주저 없이 서명을 하고 젊음을 다시 얻는다.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이다.

파우스트의 거래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을 본다. 젊음을 향한 욕망은 사실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욕망이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질서임에도 시간을 거슬러서 스스로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려는 욕망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젊음을 되찾겠다는 욕망의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욕망이 있다. 사람의 조건과 주어진 삶의 본질을 거부하려는 어리석고 불행한 욕망이다. 사람의 조건을 거부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면 오직 악마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시간의 법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늙음이라는 흔적을 남긴다.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여왕의 권력으로도 시간이 남기는 주름살을 막을 수는 없다.

책에 간혀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젊음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파우스트는 악마와의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욕망의 특징인 맹목성이다. 더 위험한 것은 파우스

트에게서 나타나는 절대적 자만심이다. 그는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악마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파우스트는 악마와의 거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거기다가 자신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런데 크든 작든 모든 종류의 욕망 바닥에는 자만과 우월 의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래서 욕망보다도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은 특권 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는 있는 총체적 파국의 현상의 뒤에는 이러한 특권 의식이 깊고 깊게 뿌리를 틀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리석거나 무지해서 또는 결핍 때문에 악마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파우스트가 삶에서 별로 이룬 것이 없었다면, 허무허무를 더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의 주름살과 백발을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파우스트는 도가 넘는 욕망을 품었고 결국 악마와 거래를 망설이지 않았다. 악마와의 거래로써 악마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조차 그의 욕망을 잠재우지 못했다.

너무나 거센 욕망은 이성과 도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이미 악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마와의 거래는 언제나 영혼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욕망의 지배를 당할 때 어떻게 악마가 되어 가는가를 말한다. 악마와의 거래는 부도덕과 불법과 불공정의 결탁이며 은폐와 왜곡과 거짓을 통해서 지속되는 타락한 거래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긴 방황 뒤에 개인의 욕망을 극복하고 참된 목표를 세움으로써 악마로부터 벗어난다. 삶의 순리를 받아들 이면서 덧없는 욕망의 늪을 빠져나온 것이다. 파우스트는 진정한 삶의 가치는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다. 파우스트가 느끼는 이러한 행복은 악마와의 거래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파우스트는 사람의 희망은 공동체적 삶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파우스트가 경험한 최고의 순간은 악마의 손길에 의해서 '주름살'을 없앴던 때가 아니고 부정의 욕망을 극복하고 '일하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이루었을 때였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덧붙여 말한다. "자유도 생명이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한겨울에 때 밀어낼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분노는 곧 자유와 생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피고인으로부터의 편지



박 성 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재판을 해왔으니 이제 형사재판장으로 재판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장으로 일하다보면 참 많은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편지, 아버지와 함께 갔던 행복한 소풍 날의 사진을 붙인 아버지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편지, 혹은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피고인을 얹혀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의 편지...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면 가족이나 고민 많은 형사재판장의 자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1년 남짓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편지 중에는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재판이 끝날 때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 전 말기 암 판정을 받았고, 아들로서 큰 불효를 저질러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아픈 것 같아 너무 괴롭다고 하며 눈물을 보이곤 범정을 떠났습니다. 2주가 지나 저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하여 그는 항소를 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서 그의 얼굴이 거의 잊힐 때쯤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의외의 편지였습니다.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 편지를 받는 일은 드물고 게다가 저는 그가 원하는 결과의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 받을 일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자신은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데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걱정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제가 운영 하는 형사법정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그와 대면한 시간은 모두 합쳐봐도 한 30분, 법정에서 그를 위해 한 말은 사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울고 있는 그를 위로하려고 한 몇 마디 말을 그가 기억하고 고맙다고 느끼고, 저의 말과 행동을 인간적으로 느껴주었다면 어쩌면 제가 더 감사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공정한 시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법정에 온 많은 사람들을 제가 과연 인간적으로 대했었던 것인지, 형사법정에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을 방해삼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들을 계속 판단하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해결하여야 할 많은 사건을 핑계 삼아 모든 사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오롯이 담겨있음을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1년을 돌아보니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은 늘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무게가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함께 목욕히 이틀고 외로운 일을 해내고 계산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제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 고

옛 경연(經筵)제도가 다시 생각나는 이유



이 여 성
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중국 한나라에서 유래한 경연(經筵)이란 황제나 군주에게 유교의 경서(經書)와 역사를 가르치던 교육제도이고 서연(書筵)은 황태자 또는 왕세자를 위한 교육제도로서 이를 담당하는 관리를 경연관 또는 서연관이라 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중기에 도입되었으나 무신정권 때 폐지되었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중요한 정치협의 기구로 크게 발전하였다. 경연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록유산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공부를 해야 했다. 사서오경(四書五經) 등의 경서를 공부시키는 목적은 임금이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여 감성육구를 억제하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있으

며 역사공부는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므로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학문과 덕행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서연과 경연은 조선왕조 시대 세자와 임금에 대한 참모로 중요한 교육훈련 과정이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세종, 성종, 중종, 영조는 경연을 매우 중시하였다. 특히 세종대왕은 경연을 중시하고 적극 참석하여 재위 32년에 약 1900회, 1년에 60회, 11월에 5회의 경연을 수강하며 토론하였다 한다. 세종은 문무 관원을 돌아가며 독대(獨對)와 윤대(輪對) 때론 야대(夜對)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라도 문제 삼지 않고 취사선택하여 학문과 문화에, 과학과 기술, 정치와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기틀을 닦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종은 재위 동안 9000여 차례의 가장 많은 경연을 열어 정치의 기준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하는 등 문화국가의 면모를 확립했다. 신하가 중종에게 "고금 역사의得失(得失)을 구문(究問)하고 대신들과 정치를 강론하라"고 이르니 "공의 말이 참으로 옳다. 내시(內侍)나 궁첩(宮妾)을 가까이 하고 여진

사대부를 멀리하면 나라 일이 날로 그릇될 것이다.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영조는 경연을 통해 신하들의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탕평책으로 혼란과 갈등, 누적된 부조리를 치유했다. 조부 영조에 의해 서연(書筵)교육을 잘 받은 정조는 학문이 어느 신하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 개혁군주가 되었다. 정조 이후 세도정치의 발호로 왕권은 쇠퇴하고 경연은 유명무실해져 망국을 맞게 되었다.

중국 청나라 강희제(1694~1722)는 유학(儒學)을 제대로 배워 비록 만주족이지만 유학으로 한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추고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일 문무백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림원 학사들로부터 경연을 수강했다 한다.

근대 중국 지도부 후진타오 공산당 서기는 10여 년 동안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특강을 받았다. 현대 중국을 이끄는 장관인 각 부처 부장과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부국강병을 위해 솔선수범 공부하는 의지를 보이고 계속 실천하고 있으니 세계 2대 강국이 되었으며 미구에 세계를 제패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신하는 어전에서

당당하게 "아니 되옵니다" 하고 부당함에 반대하다가 땀땀하게 사임하거나 때론 죽음도 맞이했다. 오늘날 대명천지(大明天地)에 권력 핵심부를 중심으로 하접한 행정질서 문란 등 가공할만한 게이트를 목도하고 있다. 국가운영에 대한 철학과 거지관, 그리고 사명감이 무너진 결과이다. 지금 국민은 엄청난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으며 국력은 심하게 추락하는 현실을 쓰라리게 경험하고 있다. 권력자의 행위가 그것이 작위든 부작위든 나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선조의 훌륭한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 절치탁마 수기치인(切跡琢磨 修己治人)이다. 옥돌은 갈고 닦아야 빛이 나고, 자신을 수양한 다음에 남을 다스려야 한다. 옛 서연과 경연제도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어렸을 때부터 민주사회 질서에 맞는 도리와 인성 그리고 가치관교육 혁신에 치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의 질서와 법치행정에 대한 지식과 공사(公私)를 구분하는 인격소양 연수를 법제화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이 민주복지사회로 새롭게 태어나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기를 국민들은 절실하게 소망한다.

社 說

이번 주가 박 대통령 결단의 마지막 기회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정국 혼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말에서 12월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되는 '격랑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함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세 가지의 굵직한 사안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총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친 뒤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야당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정을 다소 늦추거나 혹은 다른 변수가 생겨 내달 9일에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이번 주엔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압박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국회 분위기는 야당 소속 의원과 소수측, 그리고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가세로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탄핵안 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

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 간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국조 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직권 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임진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 주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주말엔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인 190만 명이 참여한 5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박 대통령도 이번 촛불 민심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 다시 답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이번에도 민심을 외면한 채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정 혼란은 심화하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이번 주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거짓말 들통난 김기춘 수사 불가피해졌다

광고사 강탈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가 어제 구속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차 씨가 변호인을 통해 최순실 씨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어제 오후 차 씨가 "2014년 6~7월께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김 비서실장과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의 변호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고 그 장소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

이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드러냄과 함께 당시 참석 한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줄곧 해명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증언이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지어 서 말했을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無 等 鼓

고려 시대 묘청은 인종 임금의 다양한 논리로 설득해 서경 천도를 시도한 다. 1132년 음력 2월, 인종은 묘청의 요청에 따라 서경(평양)으로 행차했다. 행차 도중 천동과 배락을 동반한 심한 폭풍우로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렇자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를 싫어했던 개경파 관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러자 묘청은 무리수를 쓴다.

왕의 행차가 힘들게 서경에 도착하자 날씨가 갠다. 묘청은 왕에게 대동강 뱃놀이 제안을 했고, 인종이 흔쾌히 응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기분이 풀린 왕 앞에서 묘청이 강의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 저게 뭐지?" 그 말에 신하들이 시선도 일제히 그리로 쏠렸다.

그러자 묘청은 "강위에 오색영롱한 빛이 보이시겠습니까? 이는 신룡이 침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신룡의 침이 물에 떨어지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오색 구름이 물 위에 뜬다고 합니다. 이는 천년에 한 번 보기 힘든 상서로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하늘이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는 것이니, 서경으로 천도하라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주변의 서경파들이 경사스러운 징조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인 인종은 나중엔 문공인과 이준양에게 '용의 침'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조사 결과 누군가 큰 뱀을 만든 다음, 그 속에 거운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작은 구멍을 뚫어 강물 속에 던져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짧은 기름이 물에 뜨면서 영롱한 오색을 나타낸 것이었다.

인종은 묘청을 무한 신뢰하긴 했지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시키고 김으로써 '용의 침'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이다. 결국 서경 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를 확연히 구분한 인종의 지혜가 돋보인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 민심이 하루하루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하야나 탄핵 등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청와대는 퇴진 불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근들의 달콤한 말이 '용의 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왜 모르는 것일까.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